

실속 재테크

고금리 적금 어때요?

이자에 이자 '월복리' 하나 짚 굴러라

자유적립방식 최고 0.7%까지 우대 이율 적용 4%대 '착한 적금'도 내놔... 저금리 시대 인기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3% 대 초반에 머물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손해라는 푸념이 나온다. 그렇다고 돈을 주식과 펀드로 굴러가는데는 시장이 너무 불안해 연감생심이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은행의 월복리 적금과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착한 적금'에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 적금 = 월복리란 매월 원금에 이자를 계산한 뒤 다음 달에는 기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덧 붙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단리는 원금에 대해 정해진 이자만 계산

된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월복리 정기 예금'은 최소 가입금액 300만원, 최대 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1년제, 2년제, 3년제 상품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우대금리 0.1% 조건 충족 시 1년제 금리(복리)는 연 3.8%, 일반적인 단리예금 상품이라면 연 3.85% 금리를 받아야 수익률이 같아진다. 농협이 판매중인 '채움월복리적금'은 고객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0.7%까지 우대이율을 적용해 주며 자유적립방식이어서 건별 10만원 이상, 매달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농협은 또 9월 말까지 '채움월복

리적금'에 가입한 고객 100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혜택 적금상품 = 국민은행의 'KB 행복마적금'은 입신부를 위한 고금리 상품이다.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계약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이다. 최초 가입 금액은 5만원 이상이며 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최고 연 3.30%의 기본이율에 최고 0.80%포인트의 우대이율, 0.30%포인트의 가입축하이율을 더해 3년 만기 기준으로 연 4.40%까지 가능하다. 우대이율은 KB고운맘신용카드 보유 고객 0.20%포인트, 출산축하 0.10%포인트,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둘일 때 0.2%포인트, 셋 이상일 때 0.5%포인트 등이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신규 고객은 연말까지 한

시적으로 연 0.30%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의 '원더풀 라이프 적금'도 3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최고 4.8%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4.3%(3년 만기)가 적용되는 이 상품은 적금 가입 후 생일, 졸업, 출산, 주택구입 등의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고 연 0.5%(세전)까지 추가로 금리 혜택을 준다. 단, 1년제 최고금리는 3.3%다. 기업은행의 '서민삼김 통장'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년제 정기예금에 최고 4.1%의 금리를 적용한다. 3년제 예금의 경우 최고 5%까지 이자가 주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월복리적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을 찾아 가입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16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탑승수속카운터 옆에 마련된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기념 고객사은 행사장에서 아시아나 항공 임직원들이 탑승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 고객 사랑에 보답

아시아나항공이 2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에 기념해 16일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사은행사를 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출발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100% 당첨되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했다. 1회용 즉석행운권을 증정해 1등 2명에게는 동남아 왕복항공권, 2등 6

명에게는 국내선 왕복항공권, 3등 20명에게는 국내선 50% 할인 왕복항공권을 제공했다. 또 나머지 승객 전원에게도 라운지 이용권과 모험비행기, 어린이 캐릭터 가방과 각종 로고 상품 등을 증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이 가장 큰 밑거름이 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잇따라 받게 됐다"며

올해의 항공사 수상 기념 어제 승객들에 사은품 제공

"이번 행사는 아시아나가 참사 이래 준비한 최대 규모의 사은행사"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2009년 항공업계 최고의 권위자인 ATW지(誌) 선정 '올해의 항공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전 세계 손님들이 참여해 선정한 항공 건설사인 스카이트랙스 '올해의 항공사'상을 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k@kwangju.co.kr

코스피 1700선 회복

美증시 강세 힘입어 한달만에...환율 1210원 급락

코스피지수가 한 달여만에 1,700선을 넘어선 등 주식시장이 모처럼 기분좋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5.30포인트(0.91%) 오른 1705.33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17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유럽 재정불안과 관련된 새 약재가 나오지 않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코스피지수도 1700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출발했다. 장중 지수는 기관이 차이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고 스페인 유럽연합(EU)과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협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17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

수세가 이어지면서 1700선 위에서 장을 마감할 수 있었다. 코스닥지수는 4.74포인트(0.96%) 오른 499.82로 개장했지만 외국인의 매물 출회로 상승폭을 줄여 0.88포인트(0.18%) 오른 495.96으로 마감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81% 상승하며 10,000선을 회복했고 싱가포르 STI지수도 1.2% 이상 상승해 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증시는 단오절 휴일을 맞아 열리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하며 다시 1210원선으로 내려섰다. /연협뉴스

허위·과장·비방 광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자사 제품을 과장해 선전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8년 10월3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중앙일간지에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서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연협뉴스

투자 실력 뽐내고 입사특전에 장학금도 챙기고...

전남도 내달 30일까지 모의투자대회

'투자실력도 뽐내고 입사 특전도 장학금까지 타고' 전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총상금 900만원을 걸고 '2010 전남도 대학생 및 공무원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대학생들의 금융기관 취업 및

공무원들의 경제 마인드 향상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신증권·한맥투자증권과 협약을 체결, 오는 7월 30일까지 7주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투자 대상은 주식, 선물·옵션,

외환 거래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모의투자 지원금으로 참가자들은 주식부분은 1억원, 외환거래는 3만달러의 사이버머니를 갖고 실시간 매매를 하게 된다. 분야별로 1~3위 수상자에게는 150만~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ulrosi' (슬로시리) featuring a scenic landscape and a table of financial data. The table lists various investment produc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National Integration Volunteer One-on-One Event' (국민통합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 '국민 한 마음 잇기').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hands holding a globe and text promoting the event's goals and details.